

자료제공 :2023. 8. 10.(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3매

치수안전과장

최 연 호

2133-3860

치수총괄팀장

김 지 환

2133-3862

### 오세훈 시장 "태풍 끝날 때까지 긴장 풀지 않겠다..시민 불편·피해 예방에 노력"

- 시, 재대본 1단계 발령...시·구 3,470명 근무 중, 27개 하천 및 서울둘레길 등 주요숲길 선제 통제
- 오 시장, 10.(목) 서울시설공단 종합상황실, 서울종합방재센터 찾아 태풍 '카눈' 대비 현장점검
- 침수위험 간선도로 및 청계천 관리·통제 등 안전대책 점검, 빈틈없는 대응 주문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서울지역이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10일(목) 오전 7시부터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전 9시 20분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해 시속 25km로 북상 중(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32m/s, 강도 중)이며 이날 밤 21시경 서울 부근에 접근할 것으로 예보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 밤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내외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태풍 관련 특보 상황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강 근무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오전 7시부터 '재난

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3,470명이 비상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는 호우경보 3시간 강우량 90mm 이상, 12시간 180mm 이상일 경우 내려진다.

□ 앞서 서울시는 8일(화) 오세훈 시장 주재로 '제6호 태풍 카눈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한 바 있다.

-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하천 제방 등 주요 방제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하천변과 공사장은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서울이 직접 영향권에 드는 이틀간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1단계 비상근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내 전체 27개 하천과 서울 들레길 등 주요숲길 380개 노선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 부서와 유관기관에 태풍 취약지역 등의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로전광표지로도 해당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 중이다.

□ 또한, 산사태 취약지와 빗물받이, 도로사면, 포트홀 등을 점검하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을 제거 및 정비하는 등 태풍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도 취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빗물펌프장 1개소를 가동하고 있다.

< 오세훈 시장, 태풍 ‘카눈’ 대비 현장 점검…“끝까지 긴장 풀지말고 시민불편, 피해예방 대응 철저” >

- 한편, 오세훈 시장은 태풍 ‘카눈’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 먼저,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설공단 종합상황실(성동구 청계천로 540)을 방문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태풍대비 상황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관리·통제 등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또한, 서울시설공단 앞 청계천으로 자리를 이동해 하천을 둘러보며 시민 통제 대응 상황, 시설물 및 침수피해 현황 등도 확인했다.
  
- 이어 11시 20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중구 퇴계로26가길 6)을 찾은 오 시장은 구조구급 대책과 상황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풍수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원활한 유관기관 공조 체제를 당부했다.
  
- 오세훈 시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시민 불편 등 피해 상황을 최대한 줄여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현장사진

## □ 현장사진



(사진설명) 오세훈 시장이 10일(목) 서울시설공단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태풍 대비 주요 간선도로 관리 등 안전대책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설명) 오세훈 시장이 10일(목) 태풍 대비 서울시설공단 앞 청계천을 둘러보며, 하천 수위 및 시민 통제 대응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